

장애인 구강보건 '불소화' 가 최선  
치협 실태조사, 정책 연구집 발간

장애인 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방안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치협 기획위원회(위원장 趙榮植)는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우리 나라 장애인 실태와 장애인구강보건실태를 검토,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구강보건문제에 대해 치과계 안팎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분류, 나열했다.

또 나열된 해결 방안의 우선 순위를 부여,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보건문제를 해결방안의 최우선 순위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장애인보육시설 및 장애인특수학교의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환경관리 ▲국립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장애인 구강진료체계의 법적 제도화 ▲치과대학 및 치과위생과 교육과정에 장애인 구강진료내용 포함 유도 ▲시설장애인구강보건 교육 및 구강환경관리 ▲중앙정부와 시·도 및 구시군의 담당인력확 재정보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도장애인 치과병원설립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증대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법 정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장애인 구강보건실 확충 ▲장애 유형별 적정 가산율을 적용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정비가 장애인 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 구강보건에 관련된 17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다.

공보의 애로 해결 적극 지원  
군무위원회

치협이 공중보건의들에게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며 공보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金判植(김판식) 치협 군무이사는 지난 3월 22일 李萬圭(이만규) 신임 공보의 대표와 申朱熨(신주섭) 전 공보의 대표가 참여한 간담회를 시내 모음식점에서 갖고 공보의들도 치협 회원인만큼 회무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연회비 등의 납입에 군무위원회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金 이사는 李 공보의 대표가 지난 4월 3일 논산훈련소에서 신규 임용되는 공보의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 치협 마크가 새겨진 배지를 400여개 제작해 배포했다.

金 이사는 이날이 마침 이태회의와 겹쳐 직접 방문은 못하지만 신규로 임용되는 공보의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배지와 함께 위로 금도 전달했다고 밝히며, 공보의들이 각 보건소 등에 임용되면 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의료분쟁 세미나 '계속사업으로'  
평가회의서 지적

치협 주최로 전국에 걸쳐 4번 개최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단발성이 아닌 회원들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5일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金榮九(김영구) 서울치대 교수, 玄琪鎔(현기웅) 보험이사,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회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林炯淳(임형순) 부회장은 "회원들의 높은 호응도에 비해 여러 지부를 통합해 세미나를 개최, 원거리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면서 "점차 지역을 지부단위 등으로 조정, 세미나 횟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구(金榮九) 서울치대 교수는 "실제 세미나에서 백백한 강연시간으로 인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세미나 전에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 회원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미리 접수하는 등 강연시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자들의 강의내용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연자들의 모임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며 ▲세미나 개최일이 지부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시전홍보에 신경쓸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